강동원 "내 캐릭터, 한국 영화 중 가장 재밌어요"

영화 '검사외전' 꽃미남 사기꾼 역
배꼽잡게 웃기는 황정민과 환상콤비
"한마디로 재미있는 범죄 오락영화"

영화 '검사외전'을 연출한 이일형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한마디로 재미있는 범죄 오락영화"라고 소개했다.

이 감독은 4일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 진행된 영화 제작보고회에서 "후반 작업을 하면서 영화를 자주 봤는데도 재미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외전'은 다혈질 성격의 변재욱 검사(황정민)가 살인 누명을 쓰고 수감돼 교도소에서 만난 전과 9범의 꽃미남 사기꾼인 한치원(강동원)과 손잡고 누명을 벗으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정민과 강동원이 처음 호흡을 맞추는 영화라는 점에서 관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감독과 배우들은 한목소리로 이 영화의 강점을 '재미'로 꼽았다.

황정민은 "시나리오 초고를 너무 유쾌하고 흥겹게 '후루룩' 읽었다"며 "작년 여름에 촬영했는데 작품 자체가 주는 시원함과 통쾌함이 있어 덥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동원은 "시나리오를 읽고 덮자마자 감독에게 전화해 '어쩜 영화를 상업적으로 썼느냐,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며 "제가 맡은 캐릭터가 한국에 이렇게 웃긴 캐릭터가 있어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다"고 전했다.

강동원은 극중 사기꾼 역을 맡아 짧은 영어로 미국 유학생을 사칭하고 상황에 따라 선거운동원, 검사, 조직원 등을 연기하며 사기행각을 벌인다.

그는 "한치원 역은 본인이 (사칭하는) 자기 역에 너무 몰입해서, 자기 연기에 도취해서 '메소드' 연기를 할 정도의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나게 (연기)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짓을 많이 했다. 가둬놓았던 나를 열었다"며 웃었다.

이 감독은 이 두 사람뿐 아니라 배우들간 호흡이 중요한 영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우들간 호흡이 맞아서 2시간 굴러가는 영화"라며 "배우들 호흡을 헤치지 않고 화학작용이 더 일어날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황정민 캐스팅 소식에 대학로 자취방에서 10분 정도 울 정도로 감격했다고 일화를 전했다. 또 강동원 출연 소식에 아버지한테 전화했다고 했다. 이 감독이 조감독으로 참여한 '군도'에서 강동원이라는 배우를 본 아버지가 "좋은 배우 같다. 감독이 되면 저 사람이랑 해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

이 감독은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만든 인물이지만 인물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배우들"이라며 "두 배우의 연기를 보고 '이게 프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황정민은 강동원을 "대본 분석력이 뛰어난 명민한 배우"라며 "다시 같이 연기하고 싶다"라고 칭찬했다. 강동원은 "황정민 선배가 디테일하게 준비를 많이 해 와서 현장에서 많이 배웠다"며 "선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고 이에 화답했다.

황정민(왼쪽)과 강동원

빅뱅 승리 동료에게 20억 사기 당해

YG "본인 충격 커…공동 대응하겠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6)가 수십억원대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승리가 큰 피해를 입고 마음의 충격이 컸다"면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에 "이번 일은 개인적인 차원의 소송"이라며 "이런 일이 생겨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승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승리가 고소장을 제출한 서울동부지검 등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4년 6월 동료 여가수 신모씨로부터 "내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십억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억원을 투자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부동산 투자 법인의 출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5천만원을 신씨에게 더 건넸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이씨는 지난달 29일 신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2003년에 데뷔해 앨범 2장을 낸 신씨는 이후 연예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신씨가 이씨에게 투자 제의를 할 당시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했으나 지금은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빅뱅은 오는 9~11일 일본 오사카 쿄세라 돔에서, 다음 달 6~7일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 23~24일에는 도쿄 돔에서 일본 돔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SBS 주말극 김수현 신작으로 부활

폐지 1년 만에 '그래 그런거야' 2월 13일 편성 확정

김수현 작가가 내달 SBS 주말드라마 '그래 그런거야'로 돌아온다.

SBS는 4일 "김수현 작가의 신작 '그래 그런거야'를 오는 2월 13일부터 방송하기로 했다"며 "현대 사회에서 대가족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와, 가족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주는 드라마"라고 설명했다.

이순재, 강부자, 김해숙, 노주현, 송승환, 양희경, 홍요섭, 임예진, 정재순, 김정난, 서지혜, 조한선, 남규리, 윤소이, 신소율, 왕지혜 등 다양한 연령대의 연기자들이 출연한다.

SBS는 지난해 3월 종영한 '떴다! 패밀리'를 끝으로 창사 24년만에 9시대 주말극을 폐지하고 예능 프로그램을 편성해 시청률 상승효과를 봤으나 1년이 채 안 돼 9시 주말극을 부활시켰다.

현재 이 시간대에 방송 중인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새로운 방송 시간대는 미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주형환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후보자〉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아내가 뿔났다		00 수목드라마 〈장사의 신 - 객주2015〉 (재)	00 주말 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재)	10 닥터365 1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축제 50 SBS12뉴스
12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달콤살벌 패밀리〉(재)	45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홍윤식 행정 자치부 장관 후보자〉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 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MBC 과학특집 사이언스 톡톡	
2		00 녹화중계 국회인사청문회 〈홍윤식 행정 자치부 장관 후보자〉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3	00 이언경의 직언직설	20 취재파일 K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프리파라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00 TV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5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바이클론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부르면 갑니다 머슴아들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청년에게 희망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장사의 신 객주 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달콤살벌 패밀리〉	00 드라마 스페셜 〈리멤버-아들의 전쟁〉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KBS 신년특선 〈북극 대여정 백야의 땅 13,000km〉	10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12	5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터0 동행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희망로드 대장정 스페셜	30 MBC 뉴스 24 55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다문화 사랑
06:10 세계의 눈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꼬마버스 타요
07:45 로보카 폴리
08:00 딩동댕 유치원 1
08:10 한글이 야호2
08:20 딩동댕 유치원 2
08:30 두다다쿵
08:40 딩동댕 유치원 3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
09:40 부모-고수다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사선에서
13:00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3:1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13:40 사이틴-지구인 자격평가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초등 2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20 초등 6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40 초등 4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마야의 모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
18:05 출동 슈퍼윙스
18:2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2
18:25 야옹멍멍 귀여워
18: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3
18:45 스쿨랜드 절대비법
18:55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4
19:00 플루토 비밀결사대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다채로움의 향연, 중국 구이저우〉
21:30 한국기행 〈우리들의 천국 강원〉
21:50 EBS 다큐 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35 장수의 비밀
24:10 한국영화특선 〈광해, 왕이 된 남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6일(음 11월 27일 丁亥)

子 48년생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실감할 수 있겠다. 60년생 여태까지 공력을 들이며 추구하여 왔던 바에 탄력이 붙게 되는 날이다. 72년생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경사가 보인다. 84년생 오리무중이니 잘 살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3, 89

丑 49년생 직접적이라 하더라도 편면에 얽매이다 보면 큰 안목을 놓치게 되리라. 61년생 비록 취하기는 하겠지만 의미는 약할 것이다. 73년생 방비를 잘 해야만 무너지지 않으리라. 85년생 성과의 윤곽이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43

寅 50년생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포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62년생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74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자꾸 연기되리라. 86년생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95, 34

卯 51년생 가는 곳마다 반기니 세상 살맛 날 것이다. 63년생 반복적인 점검과 관심만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75년생 실질적인 것에 주력하는 것이 무난하다. 87년생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6, 78

辰 40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결실은 미미하겠다. 52년생 마음가짐 못지않게 실행이 중하다. 64년생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76년생 흔들리지 않아야 성과를 본다. 88년생 기간이 지난 것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하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47, 96

巳 41년생 일관하는 것이 맞다. 53년생 은혜를 입게 된다. 65년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는다. 77년생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삼가야 손실을 막을 수 있다. 89년생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0, 19

午 42년생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54년생 평소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66년생 동시에 처리될 것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잘 살피자. 78년생 대화의 부족은 오해를 낳는 원인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0, 88

未 43년생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니라. 55년생 미로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길을 찾게 되는 이치이다. 67년생 선후를 면밀히 살펴보고 안배를 잘해야겠다. 79년생 근본에 충실했을 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38

申 44년생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망설이지 말라. 56년생 함께 할 일에는 빠지지 말고 반드시 동참하는 것이 적절하다. 68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운로이다. 80년생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발언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60, 30

酉 45년생 비슷한 것과 같은 것은 분명히 다름을 알라. 57년생 치열함과 집요함이 성공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69년생 바른 생각은 복주머니를 만드는 셈이다. 81년생 무의식중에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자. 행운의 숫자 : 31, 52

戌 46년생 부분에 한정되므로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58년생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요인이 발생한다. 70년생 중간에서 처세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입장에 서게 된다. 82년생 다 알게 되어 있으니 굳이 감추려 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4, 01

亥 47년생 중요한 시점이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난 후에 체계를 잡아야한다. 59년생 확실히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71년생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83년생 일부러 나서면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1, 8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